

연중 제 33 주일
평신도의 날

기도서 477면 (A해)

제1독서 : 잠 언 31, 10-13, 19-20, 30-31

제2독서 : 1대살 5, 1-6

복음 : 마태 25, 14-30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비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 25, 23).

□ 강론



평신도의 달란트

김 인 협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비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마태오 25, 21).

오늘 복음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다. 또 자주 나오는 색다른 단어인 달란트라하는 뜻은, 고대 그리스의 화폐를 가르키며, 재능(달란트)이라는 뜻도, 무게를 가르키는 단위로도 쓰인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나오는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시험한다는 “달란트”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은총의 내용에는 우리의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도 있을 수 있고, 부모복도, 처복도, 속설로 자주 쓰이는 오복 중에 든다는 치아가 좋은 복도 예를 들 수 있겠다. 열심히 신자분들 중에는, 아래와 같은 겸손한 생각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다. 죽어떠한 삶(신앙생활)이 참으로 예수님이 절반이라도 흡족해 하시는 삶일까 하는 연구(?)다.

성당을 열심히 다니며, 교회활동도 그런대로 열심히 하고 이웃에 지탄받지 않고 살며, 돈 씀씀이도 자기나 가족들에게만 쓰려 들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눈(견해)은 착하게 살되 믿지않는 사람들과 과연 차이를 두고 보실까 하는 문제다.

하느님이 큰 차이로 상을 주실까 라는 회의를 느낀다면 그 착한 사람들을 빨리 영세시키면 될 것 아니냐라는 농담같은 이웃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 말씀이 그 답변에 가름한다고 생각된다. 즉 이 세상에서 건강과 재능과 부를 받았으면 받은 달란트 만큼을 이용하여 자기, 이웃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이 참 삶이라는 것이다.

나는 금년들어 자치교구설정 50주년의 회의 행사 등을 겪으면서 참으로 훌륭한 평신도들을 많이 보아왔다. 자기의 맡은 소임을 받밧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말 배당받은 달란트를 몇 곱 늘려놓은 평신도들이다.

지금은 어느때 보다도 평신도의 활동이 요구되는 때이다. 점점 복잡해가는 사회 속에서 사제들을 도와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누구인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기다리는 그런 평신도를 많이 말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 회장)



누가 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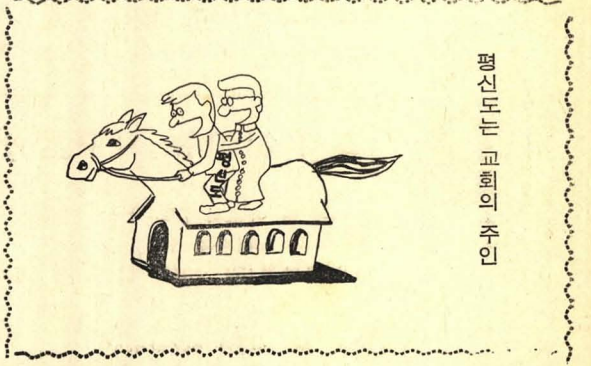
우리는 삼국지에서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 있는 조조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에는 죽은 사람들에게 세금(軍布)을 받아낸 백골징포(白骨徵布)의 악랄한 역사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느 대통령 후보의 지지성명서에서 죽은 사람(개신교 교역자)의 이름을 발견했다는 항의의 이야기를 듣는다. 오늘날의 이 이야기는 죽음을 목상하는 11월에 재미거리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의 한 토막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한다. 오래토록 살려고 버려질 것을 다한다.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욕심으로 살려고만 발버둥칠 때에 나타난다. 그래서 끝내는 비겁하고 추한 모습을 보인다. 속된 표현대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며, 보는 사람들의 눈을 혼란시킨다. 그러고는 팔사나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의연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역사에 훌륭한 교훈을 남겼던 예언자들과 순교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녔지만, 그들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걷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기리고 살아가는 것으로만 해서도 영원한 삶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세상이 복잡할 수록 어쩌면 그러도 자칭 애국자와 의인이 많은지 모르겠다. 마치 성경말씀을 대하는듯 싶다. 여기 저기서 저마다 모두 옳다고 해대는 바람에 참으로 보통사람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누가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사심없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는가를 잠잠히 생각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숲 정 이 산책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마무리를 잘 하자

기억도 새롭다.

그 하얀 함박눈이 그렇게도 포근하게 많이 내리던 날, 천호에서 세분의 성인과 열분의 무명 순교자묘지 축성식을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 공식적인 첫 행사로 가졌고, 1985년 12월 1일 대립 첫주일부터 1987년 11월 22일 그리스도양 대축일까지를 전주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의 해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이다.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을 위한 중앙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그리고 각 분과별로 조직이 확대 세분되면서 본격적인 50주년 기념해의 많은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5차례의 중앙위원회, 15차례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수시로 모였던 각 분과별 모임, 거의 매주 개최된 교구청 실무진 회의를 거치면서 50주년 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었고 기념주년이 본격적으로 실천되었던 것이다.

먼저 총 28조에 이르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규정이 제정되고,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는 물론 재경 신자들을 포함한 각분야, 계층별 신자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 추진업무별로 분과를 조직, 각 분과별로 사업이 계획되었다.

50주년을 위한 기도문이 작성 배포되고 '밝히오리다' 회보를 발행, 사업추진 사항과 계획이 매달마다 시달되었으며 교구의 역사를 요약한 홍보책자 「밝히오리다」를 발간, 교구내 각 분당 신자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 배포되었다. 무엇보다도 순교자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10만인 성지순례 운동을 벌였고 이에 따른 교구장의 대사특전이 배풀어졌다.

각 분과별로 그동안 활동했던 일들을 뒤돌아 보면, 정신분과의 계획아래 순교정신 계몽을 위한 각종 강연회 및 사료전시회가 개최되었고, 특히 교구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교구사를 편찬, 발간키로 했다.

사업분과에서는 치명자산 개발과 이누갈다 생가터 매입 및 여산, 천호성지 개발, 그리고 교구의 숙원사업이었던 피정의 집 건립을 추진, 그 완공을 보게 되었다.

50주년을 기념하는 기간 동안 각종 신심행사가 행사분과에 의해 계획 실시되었고 드디어 지난 10월 1일 기념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재경분과 주도로 모든 행사와 사업을 위한 교구민 전체에 모금이 계획 실시되어, 각 분당별로 분담된 헌금이 계획대로 봉헌되었다. 모든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많은 일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그동안 보여준 신앙적 열성을 더욱 분발시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반성하며 더욱 복음적이고 참다운 교회로서 이 지방에 주님의 뜻을 올바로 펼치는 교구로써의 그 할 바를 다하는 새로운 각오와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교구민 모두가 일치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했던 그동안, 많은 분들을 감사롭게 기억하며 50주년 기념 주년의 일지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

- 85년 11월 30일 천호 순교자묘지 축성식 및 50주년 기념 선포식
- 86년 4월 14일 여산성지 축성식 및 천호 피정의 집 기공식
 - 9. 6 10만인 성지순례 시작
 - 10. 28 K B S 교향악단 50주년 기념연주회
 - 11. 29 50주년 기념 교회사 세미나 및 사료전시회 (전주, 이리, 군산)
- 87년 3월 1일~29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50주년 연수회
 - 4. 13 이명서 성인 유해 봉송식 및 천묘식
 - 5. 25 신앙을 이어준 아버지 효도잔치 성모성년 선포식
 - 8. 31 천호 피정의 집 축성식
 - 9. 6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 9. 18~29 50주년 기념 바자회 (전주, 이리, 군산)
 - 9. 25 성곡·가곡의 밤 행사
 - 10. 1 50주년 기념대회

□ 알 림 □

교구청 각 국별 업무분담 재조정에 의해 홍보국의 빛따라, 어린양 업무가 교육국으로, 교육국의 만남지 혼인장짜가 사목국으로 분담 재조정 되었습니다. 소식, 원고 등을 재조정된 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응진 아이큐 식구초빙

- ◎대상 : 부녀사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
- ◎서류 : 자필이력서 1매 (사진 1매)
- ◎장소 : 전주시 금암동 453~16 (한진고속 앞)
- ◎대우 : 기본급 5만원, 월 15만원 보장
- ◎교우자녀 교육상담 환영 T, 75-0057
담당부장 승 루 시 아 (절차)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 전문의 황 수 경
(크리스티나)
이 승 열 (엘리아)
출 전주 84-7272
판문로 서울신탁은행건너면 골목



교 구 소 식

☆ **축!** 서석기(베드로)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을 축하드립니다
일시-87년 11월 24일 오전 11시, 장소-한일천주교회

1. 추계 주교회의 : 16일~19일
2. 추계 사제총회 : 23일(월) 10시30분, 장소-전주 가톨릭센터
3. 50주년 중앙위원회 해단식 : 21일(토) 오후 3시
미사-박정일 주교, 장소-천호 피정의집
4.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기도회 및 비디오 방영·사진전 :
이리-16일 오후 7시, 장소-주현동 천주교회
군산-23일 오후 7시, 장소-월명동 천주교회
남원-30일 오후 7시, 장소-남원 천주교회
5. 1988학년도 신학교 입학희망자 면담 : 일시-29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면담-교육국장 신부님
6. 사제어머니 모임 회의 : 20일 오후 12시30분, 장소-강덕행신부 모친매(신수당)
7. 천호 피정의집 무료 버스제공 : 1박 이상의 피정자들에게 제공합니다(전주→천호)
8. **축!** 영명(15일) 성 알베르토 : 오기순 신부님 축하합니다
9. 주소 변경 안내 : 신동천주교회, [510] 이리시 신동 8045번지

❁ 잠 간!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약칭, 평협)는 1975년 10월에 창립되어 교회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교구 차원의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성화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구 평신도를 대표하여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위한 연구 조사와 교육, 회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전국 협의회와 다른 교구 평협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며 또한 "평신도 활동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회칙 제2조)하는 평신도와 사제의 협의기구이기도 하다.

평협의 구성원은 각 본당 사목회와 교구장이 인준한 교구단체가 된다. 교구 평협은 그동안 1978년부터 시작한 신년교례회의 주관과 한 차례의 교구 연감 제작, 제단체의 결성을 통한 조직 사도직 운동, 오지본당(공소 포함) 교육지원을 전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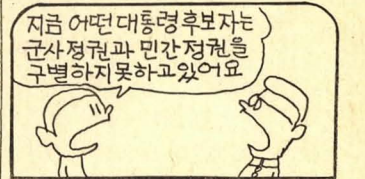
1982년 제단체 합동신앙대회, 1983년 교구 신앙대회,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에 발맞추어 성인 탄생 경축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천호 성지개발을 위한 교구 공원모지 조성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교구 사제단과 일치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전국 평협 계속사업인 KBS 공정보도를 위한 시청료 불납운동과 성명서 발표, 4·13 조치에 따른 성명서 발표 등 사회정의면에서 큰 몫을 해왔다.

1980년대에도 신자 교육을 더욱 강화, 공소·농촌본당 및 신자 제반교육을 실시해오고 있고 교구 단위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여 교구 사목을 도우며 특히 50주년 기념사업 행사에 그 몫을 다 함으로써 교구 발전에 기여를 노력해오고 있다.

그동안 제단체의 염원인 사무실을 위해 교구에서 평협회관을 인수받아 제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성숙한 신앙 안에 평협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요심이 (745) 김병오



□ 1분명상

태양이 차고 슬프게 비 추더라도 눈을 들어 미래를 보라. 저기 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오고 있지 않겠는가!

-R.M. 릴케

명동피부과의원

나비 커튼

선경커튼·카펫·홀팻션
전주시 중앙동 2가 53의5

대표 박용욱
(소화테레사)

☎ 82-2226·84-5198

성바오로 서원

카톨릭 내의 모든 서적, 카세트, 비디오, 슬라이드, 카드 종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에 신자분들의 많은 영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 서노송동 639~3 전화 3-3398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스렌즈
원장 : 전문의 마기환
한남희(비리시다)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코오름쇼핑 1층

아방스

가을 정기 세일

수예품 50%
침구 30%

직통전화 86-5252

대표 : 장순이(아네스)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 반미사안내: 18일 오후 8시5분, 배애영(시청앞)
1. 오늘은 평신도주일: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위한 2차 특별헌금이 실시됩니다
2. 사목회 정기총회: 28일 오후 5시
3. 모임: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하늘의문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성모회-20일(금) 어머니미사 후
4. 재속 심회 심의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제단채장 및 pr단장 히루피정: 28일(토) 예정입니다
6. 혼배 예정자: 적어도 혼배 할달전에 사무실에 문의
7. 교무금 기법사업(신축)금: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91,700원 교무금: 796,500원

(금강)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76-0961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 *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특별헌금 있음
1. 오늘은 평신도 주일: 꾸리아 회의-오늘 오후 2시
2. 차주는 애령주일: 선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안나회 월례회: 19일 오전 10시
4. 어머니성기대 성기연습: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5. 유아세례: 27일 저녁미사
* 대상자는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6. 통신교리 수강자: 원장수녀님 면담요망
7. 가정방문: 17일-21만·56만, 18일-22만·23만, 19일(신부님)-24만·25만·26만·27만, 수녀님-28만·29만·30만·31만, 20일(신부님)-32만·33만·34만·35만, 수녀님-36만·37만·38만·39만, 21일(신부님)-40만·41만
8. 신자 등반대회 및 야유회: 일시-29일 오전 9시30분 장소-공주갑사·동학사, 주관-금암회, 회비-1원(5,000원) * 많은 참석 바랍니다
9. 감사: 신축헌금 김후철-10만원, 소완영-10만원
10. 금주복사: 정문영·장수택 차주: 나인구·김익창
11. 금주봉헌: 김은택 부부 차주: 김중섭 부부
12. 미사안내: 증거자의 모후pr 차주: 셋별pr
□ 지난주 봉헌금: 632,240원 교무금: 412,500원 신축헌금: 200,0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김낙현
수·유 72-1222

- * 오늘은 평신도주일: 2차 특별헌금이 실시됩니다
1. 오늘의 모임: ① LM꾸리아-오후 2시 성당안에서 ② 성모회-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③ 복사단 단합대회(성지순례)
2. 예루살렘 부녀회: 16일 오전 11시
3. 애령교육 실시(장례예식 전반): 22일 오후 2시30분 장소-덕진성당 안, 대상-관심있는 모든분
4. 12월 첫주간에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을 받은분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견진교리-24일~27일까지, 4일간-8시부터 시작
5. 신부님 가정방문: 17일-화요일 오후, 18일-오전·오후(사목회 임원·단체장·구역 반장님)
6. 금주전례: 해설-정석의, 독서-복사-사목회 교문주관, 기도-가리마쓰회 차주전례: 해설-김후만, 독서-복사-성화회 주관 기도-사랑하을 모친pr
7. 축! 혼배: 신랑-도삼수, 신부-문정오(로사) 15일-12시30분(덕진성당)
□ 지난주 봉헌금: 578,620원 교무금: 626,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 오늘은 평신도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10주 수요성서: 여섯째 시간, 주제-세상의 빛과 생명 ①요한 6, 22~38절, 요한 11, 4~14절 ②마태오 16, 13~19절 ③마르코 4, 1~9절
2. 전교용 리플렛(초대합니다) 배부: 대상자를 신청합니다(각세대 10명씩),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일선물이 될 것입니다

- 3. 예비자교리: 성인-목 7시30분, 중·고생-토 6시
4. 생활교리: 공식미사 후(수녀님 지도)
5. 금주 구역미사: 모임: 17일 미사-팔복5구, 모임-동산1구, 18일 나눔찬치-동산4구 20일 미사-동산3구, 모임-원동
6. 모임: 꾸리아 회의-오늘 공식미사 후, 구역장 회의-26일 오후 7시30분, 동성회-21일 5시
7. 찬소: 죄인의 의탁 방문: 자비의 모후
8. 연말정산용 영수증(공무원, 회사원): 오늘까지 신청
9.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김준권 ②김진순 차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조용기 ②최병길
10. 수녀원 신축헌금 10일까지 신입액: 10,601,000원(153세대), 10일까지 납부액: 9,404,050원
□ 지난주 봉헌금: 213,000원(내동 15,900원) 교무금: 120,000원 수요성서 헌금: 29,15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목회장 소병을

- *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2차헌금
1. 첫영성체 및 어린이세례(유아세례): 22일 첫고백-21일 오후 2시, 대상자는 20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2. 레지오간부 및 간부후보 교육: 15일 오후 2시~4시
3. 환경미화를 위해 현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주일학교 백일장대회: 15일 오후 2시(교리실)
5. 구역미사: 마산리 19일 오후 8시
6. 종교생 미사: 토요일 오후 5시(특전미사) 21일부터 제미사 봉헌
7. 미납된 신축헌금과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고 신입하지 않은 분들은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금주전례: 해설-이건창, 독서-이춘호·박해숙 기도-전기현·안영순 차주전례: 해설-김은식, 독서-송기성·노영임 기도-이건창·전혜영
□ 지난주 봉헌금: 206,910원 교무금: 40,000원

(술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 평신도주일 2차헌금 있음
1. 오늘모임: 자모회·꾸리아 월례회-공식미사 후
2. M·E 주말교육 신청자: 20일·21일·22일(2박3일) 나상국·백대순 부부, 황영옥·신순영 부부, 하명희·김해점 부부
3. 17일·18일: 미사없음
4. 성당에서 가족사신 짝기: 기간-11월 한달동안
5. 교무금 납부차 부진합니다: 현재 56.5%
6. 신학생을 위한 신학생 후원회비: 신입과 납부하세요
7. 다음주: 86년도 영세자 모임(공식미사 후)
8. 장미의 꽃달날: 두달 반동안 총 208,335만
9. 부녀회 주판: 개량매주 소두한말 13,000원 판매
10. 미사안내: 매피의 모후
11. 금주전례: 해설-이귀태, 독서-기도-온규삼·김유자 봉헌기도-박중윤·고영숙 차주전례: 해설-이귀태, 독서-기도-신천우·권정진 봉헌기도-김진섭·김영희
□ 지난주 봉헌금: 482,325원 교무금: 376,7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 오늘은 평신도주일: 2차헌금 있음
2. 부녀회 피정: 16일 오전 9시 출발, 미사준비
3. 미사때 매일미사책과 성기집은 꼭 지참하세요
4. 주일금에 관심을: 아직도 10원짜리가
5. 안나회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할머니들 꼭 참석
6. 제대회 모임: 19일 어머니미사 후
7. 복사단 모임: 오늘 어린이미사후, 관심과 협정바람
8. 구역모임에 참석합니다: 세대당 1인은 구역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9. 금주전례: 해설-최명자, 독서-기도-김진영·임진섭 봉헌-류재웅·박영희, 안내-나동진·박창윤 차주전례: 해설-박강웅, 독서-기도-송동석·김해란 봉헌-박동철·김정래, 안내-이순영·강신근
□ 지난주 봉헌금: 423,140원